

지역 소식통

원광대 의과대학 박현 교수 대학 발전기금 2000만 원 기탁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장 박현 교수가 대학 발전기금으로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2013년에도 학술상 상금 등 1,000만 원을 기탁한 박현 교수는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강의동 신축기금으로 발전기금을 기탁했으며, 28일 총장실을 방문해 직접 기금을 전달했다. 박현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김도중 총장은 "동문으로서 모교 발전을 위해 공헌하시는 분들에게 큰 감동을 받고 있다"며, "보내주시는 정성을 기반으로 모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농특산물 '가락물' 입점

익산시 농특산물이 전국 최대 유통 규모를 자랑하는 도매시장인 가락시장내 '가락물'에 입점해 수도권 시민들의 입맛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익산시는 29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서울 가락물 위탁운영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팔도마당과 가락물 운영 및 입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가락물 내 익산시 농특산물 홍보판매관을 설치해 4월부터 탐마루 상품을 비롯한 우수 농식품 50여 품목을 본격 홍보·판매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주)팔도마당에서는 홍보판매관 운영 외에도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해외 수출, 다양한 관측행사 등 주기적 이벤트를 통해 홍보판매관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신평동, 새봄맞이 봄꽃 식재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준비 박차

군산시 신평동(동장 김정훈)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신평동 관내 주요거리 및 마라톤 코스에 팬지꽃을 심으며 대대적인 가로 환경 정비에 나섰다. 새봄을 맞이하여 신평동의 직원들과 자원단체 회원 20여 명은 관내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변에 5천여 본의 팬지꽃을 심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며 내달 9일에 개최되는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평동에서는 관내 공한지 및 이면도로 주변 등 건축 적치물 불법쓰레기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신평동장은 "신평동을 찾는 새만금마라톤대회 참가자들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신평동의 이미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금강농산 대기비출시설 폐쇄되나

익산시, 최근 비료공장 인근 암 집단 발병 인해 조치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니켈 배출시설 적용기준 초과

익산시(시장 정현용)가 최근 비료공장 인근 암 집단 발병 보도와 관련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유)금강농산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금강농산을 대상으로 측정한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Ni)이 배출시설의 적용기준(0.01mg/Sm³)을 초과한 0.0470mg/Sm³로 배출됐다. 니켈(Ni)이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이상

으로 배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하여 해당 장소에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불가능하다. 시는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폐쇄명령이 가능하다는 법적조문에 따라 해당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정현용 시장은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단속

을 통하여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유)금강농산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유)금강농산의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설치한 공기조절장치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이반 주 내 집행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서천군 협업 행정 추진

유부도 일원 갯벌 세계자연유산 공동 등재

군산시와 서천군은 유부도 일원 갯벌 약 30km를 오는 2019년 세계자연유산 공동 등재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군산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군산시, 서천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재)서남해안갯벌등재추진단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 13일 공동 등재 추진을 위한 1차적 협의를 마쳤는데 유네스코 등재에 필요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적 소통을 꾸준히

실시하여 군산시와 서천군의 공동상생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양 기관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도시 브랜드가치 상승 및 시너지효과를 강화하여 금강권역을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 연말 동태교가 개통되면 두 지역은 10분내 생활권이 형성되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유부도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공동 등재 추진은 좋은 협력 모델이 될 것이

다"며 "앞으로 이를 계기삼아 유부도, 금강주변을 연계한 발전방향 설정으로 서해 중부권의 행복의 지역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 회의를 통해 분야별 업무속도 및 등재에 차질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유부도 일원은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 물떼새를 비롯해 56종의 조류와 125여 종의 저서동물이 서식하여 세계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며 군산시의 관찰 행정구역은 약 8km 정도가 해당된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특히 지난 2015년 2월 화해·협력·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 가기로 합의하고 행정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병원, '최첨단 3.0T MRI 도입' 4월 초 본격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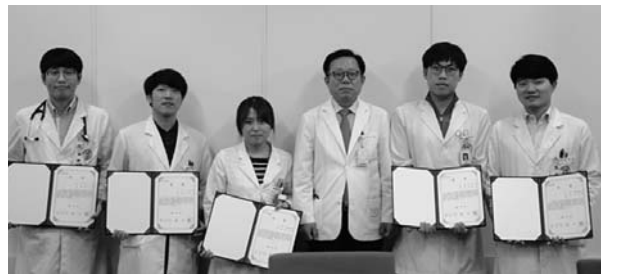
익산병원은 필립스 사의 최신행 3.0T MRI 장비를 도입 4월 초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3.0T MRI는 지금까지 나온 MRI 장비 중 최고사양으로, 기존 MRI에 비해 신호의 세기와 선명도가 2배 이상 높아 인체의 정밀검사가 가능하다. 인체 내 미세혈관, 뇌 및 뇌혈관 두경부, 척추, 근골격계, 상·하복부, 움직임이 생기기까지 수많은 임상 영역에서 3D 영상촬영이 가능해 선명한 화상 이미지를 볼 수 있어, 악성 병변의 판별 및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대비 6cm 넓은 검사 출입구와 173cm라는 짧은 시스템 길이를 가진 환자 친화적인 장비로 폐쇄공포증 환자나 소아환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최소화하면서 편안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방법으로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준 병원장은 "지역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가지 않고도 대학병원 수준의

최신 의료기기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진단의 정확성과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학교병원

하반기 의무기록 충실 작성 의사 시상

원광대학교병원은 문화센터 5층 회의실에서 2016 하반기 의무기록 충실 작성 의사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시상식을 가졌다. 원광대병원은 환자 질병과 치료 및 예후에 관한 환자 관련 의무기록이 충실하게 기록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날 선정된 2016 하반기 의무기록 충실 작성 의사에는 내과계 김준(내과), 윤나리(재활의학과), 외과계 유현식(성형외과), 임경훈(정형외과), 이진성(신경외과) 등 5명이다. 의무기록 충실 작성의사에 대한

평가는 환자수/재원일수 대비 퇴원 미비 기록 발생건수, 재원환자 미비 기록 발생 건수, 현재 미비 기록 건수, 미비 기록 발생 후 작성의 신속성 및 협조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김경우 원광대병원 의료정보관리위원장은 "의무기록은 환자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록물이므로 오거나 누락은 물론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바쁜 와중에도 의무기록 관리에 충실하게 임해 준 의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렛츠런드림센터 자유공간 공모사업 선정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여성가족부와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에서 주최하는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렛츠런드림센터 자유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공모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유공간 조성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한 사업으로 전국 202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중 11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군산시청소

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자유공간 명칭은 꿈을 디자인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렛츠런 꿈: D'로 정해졌으며, 이번 공모 사업비는 '렛츠런 꿈: D'의 설치 리모델링비와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자격증지원, 스타디 동이리 등의 프로그램운영비에 사용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

군산시는 29일 학계, 경영계, 여성계 등의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군산시 주요업무 자체평가 위원회(위원장 심재업)를 개최했다. 자체평가 위원회는 시에서 수행하는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을 대상으로 시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목표설정 및 달성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업무추진의 능률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일한 만큼 평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안전은 연말 전부터의 업무평가에 적용되어 5급 이상 성과연봉제 반영 및 인사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는 시장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균형 있게 성과를 평가하는 BSC의 4대 평가관점을 통해 성과상여금 반영, 인사참고자료 활용 책임행정, 투명행정, 일한 만큼 평가받는 공직풍토 정착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Gunsan City featuring a child and text: '동행'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